

한겨레

경제 산업·재계

정신이 번쩍드는 돌얼음 화채

이정용 기자

수정 2026-04-03 23:37



로또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사람들이 "97% 모르는 1등 당첨 번호.."

AD

대입수학능력시험을 100여일 앞둔 31일 오전 (주)풀무원이 서울 안국동 풍문여고 3학년 학생들에게 신제품인 돌얼음으로 만든 과일 화채를 전달하는 행사를 벌여 학생들이 화채를 맛있게 먹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